

1)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특허와 기술 혁신

①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中

6강 『장기 20세기』와 헤게모니 순환의 역사 p299~345

7강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p349~404

6강 『장기 20세기』와 헤게모니 순환의 역사

1. 네 번의 헤게모니 순환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체제론자인 조반니 아리기는 <장기 20세기>와 <세계론으로 보는 세계사>을 통해 자본주의의 반복되는 호황과 위기를 세계 패권의 순환이라는 틀로 분석하였다. 아리기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17~18세기의 네덜란드 패권기, 19세기 영국 패권기, 20세기 미국 패권기를 거쳤으며, 각각의 시기는 패권국이 주도하는 독특한 축적체제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아리기는 헤게모니 순환의 역사에서 15~16세기초 제노바 순환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제노바가 근대세계 체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제노바는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을 포괄하는 시기로 이 도시국가들이 규모만 작을 뿐 근대 자본주의의 세계경제의 국가간 체계가 가진 주요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17~18세기의 네덜란드 헤게모니 시기는 그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중세질서가 무너지고, 국가가 군사 조직 등 더 큰 힘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19세기 영국 헤게모니 시기는 모든 국가들이 민족국가라는 이름 하에 형성되고, 신대륙의 식민제국은 약화됩니다. 또한 영국중심의 일방적인 국가간 체계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시장이 형성된다.

20세기 미국 헤게모니 시기는 열강들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를 갖게 되고, 영국시기와 다른 자유무역에 대한 제약과 다자주의적 방식의 무역이 마련된다.

2. 장기 16세기와 네덜란드 헤게모니

네덜란드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모델의 중요한 요소(세계적 규모에서 이윤획득 기회 극대화, 자체 무장력을 확대하여 경쟁국가를 무역영역에서 배제)를 모방하여 유럽 상업의 헤게모니로 등장합니다. 핵심 성장요인은 공인합자회사인 동인도회사라는 기업조직을 통해 원거리 무역(차, 향료 등)과 상업을 독점적으로 중개하게 되고, 파생되는 모든 금융적 거래와 어음결제까지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이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상호침략할 수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유럽국가들이 네덜란드를 추격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고, 네덜란드는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았으며,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우위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3. 영국 헤게모니

영국헤게모니는 일국의 산업자본주의라기 보다는 상업제국주의 또는 전지구적 상업 네트워크에 기반한 영토제국주의에 가깝습니다. 가령, 직접 입수하여 고가로 파는 네덜란드의 유통과 달리 영국은 부피가 큰 생필품의 무역에서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식(식민지를 개척해 원료공급지를 장악하고 노동력 가격을 통제함)으로 이윤을 취합니다.

영국헤게모니는 한 요소가 아니라 세계의 공장과 식민지들, 이것을 지탱하는 영국 해군,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망, 세계를 통합한 금본위제 등이 모여서 영국 헤게모니의 기반을 이뤘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네덜란드가 장악하지 않은 지역을 진출하려다 보니 무력에 의존한 내륙진출이 추진되었으며 결국 인도 무굴제국을 해체하고 대륙을 장악합니다. 이로 인해 동인도회사의 독점권은 폐지되고 소규모 기업의 상업네트워크가 발전한다.

인도는 영국 헤게모니가 미국 헤게모니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인도에서의 착취를 통해 영국은 국채와 대외무역적자를 해결합니다. 또 목화와 같은 원료생산을 대량으로 마련하고, 인도의 용병을 활용하고, 인도가 가진 자원을 영국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상업제국주의를 유지한다.

또한 영국 내에서는 기계제의 도입으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생산 산업과 상인들의 상업의 영역이 분리됩니다. 산업이 거대화 되면서 생산요소가 즉시 구매 가능해지기 위해 토지, 화폐 노동력이 상품화 됩니다. 그리고 자본재 산업이 비대해지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전쟁이나 해외팽창이 더 가속화된다.

영국의 팽창은 1873년 공황과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잦아듭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영국을 모방한 영토제국주의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중화학이나 군수사업을 육성한 독일모델과 반독점 정서로 독점이 어려워지자 원료추출에서부터 가공생산과 마케팅까지 하나의 수직적 연결선을 통합하는 법인 기업 방식의 미국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신 해외의 식민지보다 인디언을 박멸하는 내부 식민지 개척에 집중합니다.

4. 미국 헤게모니(의 등장)

19세기까지 미국 자본주의는 고비용의 영토확장보다 초국적 기업, 초국적 자본이 자회사를 통

해 원료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원료공급지를 만들어 나갔다. (불간섭 정책으로서 먼로 독트린)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고립을 막고 자본주의 재생산이 유지되기 위해 전지구적 뉴딜이 마련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후, 미국 법인 기업들이 전지구적으로 팽창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플라니는 미국 헤게모니 시기에 보여진 특징을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유시장경제에 일정하게 제약하는 요소(뉴딜, 사회복지국가)로 작동해 온다. (영국 헤게모니의 극복자로서)

1929년 대공황이후 고도금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이 등장하였습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고(1933년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내 노동자들을 포섭합니다(포드주의, 생산성 임금제). 하지만 20세기 말이되면 뉴딜의 유산은 사라진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 등을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하고, UN을 설립하여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 관리방식이 마련되고 금-달러본위제가 복구되고,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전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일종의 유효수효를 창출해주거나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제고하였다.(냉전구도에 의해)

7장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1. 신자유주의 금융화

1) 금융화의 만개

2차대전 이후 20년간 황금기를 구가하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재정위기가 촉발되면서 달러가치 저하를 되돌리기 어려웠고,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됩니다.(금-달러본위제 -> 변동환율제) 이미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금융영역을 지닌 영국이 이 체제의 내용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규제는 사라지고, 공공채무는 증권화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또한 달러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후발국가들(독일, 일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시장으로 대대적인 진출을 하게 된다. 결국 미국의 산업은 점차 금융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 경제가 장기침체기에 들어가고 달러가치가 하락했지만 미국은 달러 발권의 힘으로 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달러의 과잉공급문제와 과잉축적 문제가 확대되었다. 결국 미국 내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데 유입된다.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은 자본의 수익성을 엄청 떨어

뜨리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1980년대는 70년대의 위기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정책이 추진되고 미국 내 실질 이자율이 인상되고, 본격적인 금융화가 이루어진다.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저리로 미국에 대출을 받았던 제 3세계와 동유럽 국가들은 외채위기를 겪는다. 미국 내에서도 노동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저축대부조합들이 파산되며 금융대형화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한편으론 소련과의 우주경쟁으로 정부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엄청난 재정적자를 남겼다.

20세기말의 금융화는 19세기의 금융화와 비교했을 때 공공채무의 증권화되면서 국가정책 측면에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산업지배적인 금융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했다.(GE) 또한 노동의 포섭이 중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긴축으로 쉬게 갈 수 없었다. 그리고 19세기 말은 영국의 자본이 영국을 빠져나가 미국과 유럽에 투자되었지만 1980년대는 세계의 자본이 역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그밖에 미국의 절대적 군사우위, 초국적 기업의 상호침투적 경제망 확산, 배제지역이 늘어난다는 점, 조직된 저항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2) 미국의 '신경제'의 취약성

1990년대 클린턴은 사회보장 비용을 삭감하고 재정지출 적자문제를 해결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달러의 신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5~1998년에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신경제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미국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사기위해 은행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기업 가치를 올려 M&A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달성하려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IT산업에 의존한 성장으로 IT기업은 자본조달을 주식시장에 의존하게 되는데 주로 나스닥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불리고 단기차익을 본 다음, 주식을 팔아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IT의 거품도 대대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신경제 시대에는 외국인 소유 자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3) 금융 취약성과 체계의 위기

자본의 자유이동에 규제가 없어지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들어들고, 세계 자본의 흐름이 중심부로 향하면서 배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외채위기를 겪는다. IMF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파짜기가 시작되고 1990년대에는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2. '제국'의 불안정한 태도

1) 제국 논쟁

부시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지만 IMF 같은 구조조정 조치를 받지 않고 자본수지 흑자로 손실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당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바뀌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으로 자본유입은 줄어든 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동아시아가 미국에 수출해서 번 돈을 다시 미국에 맡겨서 그 돈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구조로, 미국의 동아시아 의존이 커지고 있다.(중국...)

3) 미국의 해외자산과 외국인의 미국 내 보유 자산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보다 미국내 보유한 외국 자산이 두배나 많은 것에 비해 자산수익 총액은 거의 비슷하다. 다시말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다 지출되고 있다.

4) 가계부채

주식시장의 팽창에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었고, 신용을 통한 주택의 구입,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 등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많은 수단(가계 부채를 늘리는 편법)들이 등장했다.

5) 배제된 지역의 증가

미국 자본주의는 세계를 다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별지역만 편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버려진 지역에서의 발전주의 신화가 붕괴된다.

6) 전쟁비용 지불의 한계

부연설명

- 아리기 모델.... 자본주의가 헤게모니가 된다음에... 헤게모니 상승기 둔화, 하강기, 금융화 헤게모니의 순환이 반복됨. 이윤율을 잠깐 반등시키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다음 헤게모니로 넘어간다는 방식임.

- 영국이랑 미국을 중심으로

- 다른 국가들의 표준적인 경제발전 모델이 있었음.

영국은 19세기 인도랑 병합하면서, 원료모델, 1860년대 산업혁명을 통해 원료를 생산력.. 전 세계 수출방식

- 따라잡는 방식이 있었음.

미국은 20세기 법인기업(주식시장), 1920-40년대 2차 산업혁명,

축적체계를 영국은 생산비용의 내부화 노동력비용, 원료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었음. 미국은 거래비용의 내부화를 절감하는 방식이었음. 1970년대 금융세계화 모델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주식

자본주의 과잉축적